

가을태풍 길목 되나...광주·전남 대책 마련 시급

지구 온난화에 해수면 온도 높아지며 9~10월 발생 늘어
8월 수확 가능한 사과·배·벼 등 조생종 품종 개발 필요

올 들어 역대 가장 많은 태풍이 덮치면서 우리나라가 '가을태풍'의 통로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가을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확기 농작물과 바다 양식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을 태풍'의 길목에는 광주·전남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태풍 때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북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총 18개로, 이번 18호 태풍 미탁을 포함한 총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는 기상청이 태풍을 본격 관측한 1951년 이래 1959년(7개)과 '공동 1위'에 오른 기록이다.

특히 올 9월에는 태풍이 추석 이전부터 시작해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그리고 이번 제18호 미탁 등 유례 없이 연속적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때문에 '미탁'은 10월이 아닌 9월 태풍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가을(9월) 태풍의

영향을 3차례나 받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9월에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이 3개나 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최근 3~4년간 가을 태풍이 잦아지는 현상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1951년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는 1954년, 1956년, 1959년, 1961년, 1991년, 1999년, 2016년, 2018년 등 총 8차례에 걸쳐 9월 태풍의 영향을 2번 받았다.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4년 새 9월 태풍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태풍보다는 가을에 북상하는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대급 재산피해를 낸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힌 2010년 콘파스 등도 모두 가을에 발생한 태풍이다.

이처럼 최근 가을에 태풍이 많아지고 위력도 커지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으로 오는 '가을 태풍' 수가 많아지고 경로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기후변화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9~10월에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태풍은 바다로부터 수증기



물바다 된 완도 제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든 2일 완도군 완도읍의 침수된 도로를 차량과 행인이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다.

를 공급받아 힘을 키우는데, 한반도 인근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더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를 흡수한 태풍은 힘을 잃지 않고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0.8도 정도 상승했다.

여기에 기존과 다른 북태평양고기압의 이상 움직임도 태풍이 우리나라로 진입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태풍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는데, 올해는 일본 규슈 인근 해상의 북태평양고기압이 가을로 접어들어 세력이 줄지 않으면서 일본이나 태평양으로 이동해야 할 태풍이 9월 들어 3차례나 우리나라 중에서도 광주·전남으로 진입한 것이다.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은 한여름에는 크게 확장해 태풍을 중국쪽으로 보내고, 가을에는 크게 수축해 일본쪽이나 대한해협

쪽으로 태풍을 보내는 게 일반적 패턴이었다.

이처럼 수확기인 9월에 태풍이 집중되면서 품종 개량 등을 통한 농작물 수확기 조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동관 작물연구팀장은 "가을 태풍이 많아짐에 따라 8월 추수가 가능한 사과, 배, 벼 등의 조생종 품종을 개발했고, 추가로 개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화순서 잇단 기차 사고

전남에서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6시 15분께 순천시 별내면 철길 건널목에서 차단기를 들이박고 철도에 들어선 강모(59)씨의 쏜렌토 차량을 화물열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쏜렌토 차량이 20여 m를 밀려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지만 강씨는 경상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사고를 냈으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 15분께 화순군 이양면 철길 건널목에서는 김모(46)씨의 1t트럭과 무궁화호 열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은 3m정도 밀려나고 완파됐으나, 김씨는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씨의 트럭은 건널목을 건너다 갑자기 사동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후배 속여 돈 훔친 50대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일 후배가 차량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0만 원을 훔친 김모(57)씨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고향 후배 A(56)씨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에게 도박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뒤 갑자기 뛰어들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산대 교수, 5·18추모탑 표절 의혹 고소 취하 5월단체·나상옥작가 "이미지 타격, 강력 대응"

5·18민중항쟁추모탑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자인 나상옥(60) 전 광주미술협회 회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동일(80) 부산대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 나 전 광주미술협회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취하에 따라 5·18추모탑 표절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광주와 5·18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5월 단체와 나 전 회장측은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우기로 했다.

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27일 등기우편을 통해 고소 취하장을 북부서에 제출했다. 취하장에는 특별한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소를 취하합니다'라는 문구만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저작권법이 친고죄(고소가 있어

야 재판이 가능한 죄)에 해당해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이 교수는 5·18 추모탑을 디자인한 나상옥씨가 본인의 도안을 표절했다며 지난 6월 11일 나 전 회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광주북부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교수는 고소장에서 "지난 1995년 7월 광주시가 주관한 '5·18 추모탑 조형물' 공모에 내기 위해 부산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 전달한 설계도를 나씨가 모방했다"며 "탑 상단부 다이아몬드 형태 등이 내 설계도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교수의 설계도는 광주시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회장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광주미술인공동체 소속 조각가 10여명이 공동으로 제작했고, 이 교수가 누군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수개월에 걸친 경찰조사에서도 나 전 회장의 표절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이 교수의 주장을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하면서 전국적으로 나 전 회장은 물론 광주와 5·18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교수의 고소취하 소식에 나 전 회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 전 회장은 "법정에서 명확히 사실 여부를 다루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니 어이가 없다"며 "이번 일로 개인 명예는 물론 광주와 5·18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단체들과 협의해 이 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며 "또한 이 교수의 뒤에 광주와 5·18을 폄하하려는 불순 세력이 있는 지 등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10대들 형량 가중

사망 예상하고도 방치 책임

향소심서 주범에 징역 9년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향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호)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18)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를 했다.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

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졌다"며 "A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사망 당시 16세)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PC방서 여자알바생 보며 자위

PC방 건물에서 10~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자알바이트생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CC-TV에 찍혔다는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와 충격.

SNS 페이스북 '광주충장로-구 시청 대신 말씀드림' 페이지에 지난 1일 익명으로 "이날 오후 6시께 한 남성이 방화문 뒤에 숨어 스태프들을 보면서 자위를 했다"는 글과 함께 영상 캡처 이미지가 게재된 것.

이 글은 '광주에서 난리난 PC방'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해당 글 작성자는 "어려보여서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에 또 그러다 적발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317498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